

혁신 도시 건설보고회

혁신도시 청사진 마련은 우리 국민의 역량 보여주는 것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도 수고 많으셨고 건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노사 양측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처럼 엄청난 결단을 해주시고, 또 노사 간에 원만히 합의가 돼서 오늘 이런 혁신도시의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도시 얘기를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과연 공공기관들이 결단을 내려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거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도지사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각 자치단체의 시군 대표들과 주민들도 불만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또 흔쾌히 합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승복까지 이르는 이 결과가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만한 일을 해 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든든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대립하는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항상 저와 국민들의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 역사를 매듭 지어 낸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역량이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수십 년에 걸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 50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30-40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들은 바람직하지만 속도에서 우리 한국이 해 낸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혁신도시가 2010년께까지 완공이 되고 2012년까지 입주 다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그저 공공기관의 이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건설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사업의 깊이나 폭이 훨씬 큰 것입니다. 10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이 대역사를 해낸다는 것은 우리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자랑스럽고 가슴이 뚫히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이 역사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는 경제·산업·삶의 형태를 새롭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

당장 혁신도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그 넓은 도에서 1-2만 명의 혁신도시 만들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작게 잡아도 3만2천개의 일자리가 직접 이전하게 되고, 거기에 파급해서 생기는 일자리가 약 13만개 정도 될 것이라는 보고입니다. 연간 산업 효과로서 9조를 넘고, 직접 부가가치 창출이 연간 4조 정도 된다니 지역으로서도 이것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혁신도시가 그 수준에서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표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혁신도시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경제와 산업과 삶의 형태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정에서 도시계획과 건설, 그리고 정보통신, 환경, 교통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가장 쾌적한 도시, 가장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도 활력 있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구상해 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규모가 작을 뿐이지 환경이 같은 그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최상의 환경기술이 뒷받침하는 가장 쾌적한 도시에서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삶의 질을 위한 서비스들이 아주 적절하게 제공되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질 높은 일자리들이 함께 있어서 경제와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만들어진 그 도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난 12월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시간을 쪼개어 말레이시아의 행정도시를 가보았습니다. 중세기 그림으로 보던 그림 같은 성, 그 어느 그림도 그만큼 아름답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잘 꾸며진 도시를 보고,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며칠 폭 놀다오고 싶은 그런 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한국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그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수준과 기술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아서 한껏 꾸밀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와 같은 새로운 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대강 공공기관 몇 개 들어와서 그렇게 꾸민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지방화 시대를 선언하고 균형발전전략을 얘기할 때 그 핵심은 산학연관의 혁신 클러스터였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지식이 모이고 거기에서 혁신을 해 낼 수 있는, 또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그 안에서 자발적인 역량으로 아주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때 지방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될 것

중앙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따온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혁신역량과 결합되지 않으면 소비위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혁신역량을 내부에 축적해야 되는데 그 거점은 이 혁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가 와서 살고 싶은 도시, 떠났던 일류 인재들이 돌아오고 그 인재들이 함께 활발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하는데 핵심적인 거점이 교육, 문화, 환경, 연구 그리고 혁신 등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는 그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 혁신도시는 1시간~1시간 30분 내로 행정도시에 도달될 것이고, 30분~1시간 이내로 우리가 6대도시라고 말하는 큰 대도시로 결합되면서 지역발전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위해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준비해 가면서 그 안에 지식기반의 혁신역량을 내용으로 담아내서 지역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혼자 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물도 물고기 잡는 법도 결국 지방이 다 하는 것이고, 혼자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원들, 특히 지식역량 등의 역량들을 뒷받침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균형위원장의 보고 중에 R&D 예산이 서울과 대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2004년도까지 27%가 지방에 배정됐는데, 그것을 올해까지 36%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2008년까지 40%로 꼭 올려내겠습니다. R&D 예산은 총액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편성을 하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과학기술부와 예산처에서 최종적으로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R&D 예산이 약 9조 3천억 정도 될 것입니다. 9조 3천억인데 2008년 되면 이것이 더 늘어납니다. 40%라고 하면 27% 시대보다 13%가 늘어납니다. 적지 않은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영향평가라고 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우선하게 하도록 하는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드는 사업비들도 계산해 보려고 했지만 국가 예산이 무척 복잡해서 어려웠습니다. 한꺼번에 계산은 되지 않지만 이처럼 계속해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의 대학교가 지역의 혁신, 인재육성의 거점이 되어 산업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체에서 혁신 역량 축적해야

그렇게 해 나가더라도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인프라, 공동개발의 인프라 그리고 기술을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센터 등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중에서 높은 수준의 것이 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될 것이고, 그 다음 좀 더 실무적인 기술들은 지금 각 지역 공단 등의 산업클러스터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도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착실히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상징으로서 우리 혁신도시가 오늘 그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 보고했습니다. 이제 모두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광주·광주광역시의 광산업 등 지역산업을 도와주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발전을 위한 역점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이 함께 짜여지지 않으니까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도 그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야말로 지역 자체에서 혁신역량이 축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자체의 노력과 혁신역량이 축적되지 않으면 균형발전정책 역시 궁극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줄 알지만 배전의 노력을 함께 하셔서 지역의 산학연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또 그 성과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차등화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구시장님이 와 계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구 얘기만 하면 섬유 말고는 후보로서 공약할 공약거리가 없어서 참 답답하다는 말을 가끔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여러 차례 대구를 방문해 보고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구 그 자체에서 소위 지역의 혁신활동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인재들을 배출해서 대구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해외에 끊임없이 취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구의 새로운 산업의 밑거름이 되어 벤처기업 등 혁신적 기업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 그 지역이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아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 전북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전주도 우리가 그동안에 전라북도는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면서 실수도 하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기계산업에 관해서 상당히 큰 가능성을 보고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서 큰 일이 벌어지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또 다시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특히 아주 특색 있는 음식들을 선호하는 데, 전북이 웰빙시대에 있어서의 농업과 농업제품의 가능성을 한 발 앞서 열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 보니 이제는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들은 결국 스스로 열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새롭게 느낍니다. 어느 지자체에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지방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으로서도 힘차게 노력해서 우리가 2010년쯤에는 새로운 성공을 기대했으면 합니다.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큰 틀을 잡았습니다. 지역혁신클러스터 또는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터 등의 지역산업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점진해 나가도록 주문해 놓았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가는 새로운 국토 설계

그 다음에 도농상생형 국토공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 전업으로 하지 않고 농사를 그냥 농사를 하던 것이라서 하는 사람, 광의로 봐서 취미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 농촌의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좀 더 쾌적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농촌도 새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형 농촌, 다양한 농촌공간의 계획 등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혁신도시, 거점도시, 또는 농촌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심도시, 이런 개념들을 함께 만들어서 전 국토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를 다시 조성하는 계획들을 이 기회에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가는 새로운 국토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지방의 발전계획과 또 무관하지 않은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